

社會淨化運動의 理念과 方向 [제 3 회]

大韓齒科醫師協會 淨化推進委員會

— 連 載 目 次 —

- 제 1 회 : 제 1 장 社會淨化運動의 意義
 - 1. 社會淨化運動의 當爲性
 - 2. 社會淨化運動의 背景
- 제 2 회 : 제 2 장 社會淨化運動의 民族史의 脈絡
- 제 3 회 : 제 2 장 社會淨化運動의 理念
 - 1. 正 直
 - 2. 秩 序
- 제 4 회 : 제 3 장 社會淨化運動의 目標과 方法
 - 1. 推進目標
- 제 5 회 : 제 4 장 社會淨化教育의 方向
 - 1. 家庭教育
 - 2. 學校教育
 - 3. 職場教育
 - 4. 社會教育
- 제 6 회 : 제 5 장 社會改革運動의 歷史的 考察
 - 1. 鄉約運動
 - 2. 日帝下의 民族更生運動
 - 3. 50年代의 農村發展運動
 - 4. 60年代의 社會改革運動
 - 5. 새마을運動
- 제 7 회 : 제 7 장 結 論

제 3 장 社會淨化運動의 目標과 方法

우리는 지난날 社會改革과 精神革命을 부르짖는 각종 캠페인을 보아 왔으며 그러한 캠페인들이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정화운동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고 성급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각종 國民運動은 社會的 病理現象에 대한 근원

적인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호응을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바라는 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정화운동이 정신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목표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실질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요망된다. 물론 그와같은 방향설정은 보다 높은 국가발전이념의 범위내에서 진단되고 처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1. 推進目標

사회정화운동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근대적 규범질서의 확립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民主主義를 土着化하기 위해서 民主市民의 倫理를 확립하고, 경제적으로 국제경제체제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合理的인 經濟倫理를 마련하며,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평하게 경쟁하고 획득하여 발전할 수 있는 社會倫理를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20세기 이전의 우리 조상들은 농업을 위주로한 村落社會를 중심으로 儒學의 엄격한 규범질서 속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日帝統治 35년은 우리의 전통적 규범 체계를 뒤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不信과 抵抗의 폐습을 남겨 놓았다. 또한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일어난 南北分斷과 동족상잔의 南北對決 狀況下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生存을 위해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지난 16~6년간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 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에 가까운 잘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혼란과 高度成長의 와중에서 전통적 규범질서는 점점 약화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좋지못한 外來風潮의 범람으로 우리 사회는 규범의 혼란(anomie) 상태가 야기되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생각해 보자. 해방이래 인구는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인구의 57%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있는 도시화된 사회이며, 세계 160 개국 중에서 15번째가는 貿易大國이며, 社會·教育·文化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박차 뛰어들고 있다. 15~6년전의 한적한 농촌에서 여유있게 그리고 예의와 염치를 알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수많은 빌딩들과 차량사이에서 달리며 살아야할 정도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 또한 우리가 처한 國際環境을 돌아볼 때, 가속되는 資源不足과 國際競争의 격화는 우리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를 보다 합리화되고 협동·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다. 위와같은 상황인식에서 볼 때, 우리의 傳統을 존중한다하여 忠·孝·禮만을 강조하고 있을 수 없으며 그 반대로 추상적인 自由와 平等만을 내세울 수 없다고 본다. 人口密度가 높고 삶의 경쟁이 심하고 우리주위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규범질서가 더욱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사회는 발전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존속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어떠한 규범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가? 사회정화운동이 순수한 국민주도의 정신개혁운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계 각층에 맞는 규범질서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사회정화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향으로서 社會淨化의 四大原則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道德性의 原則(principle of morality)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는 도덕의 힘이 점차 약해져서 그 결과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도덕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의 궁극적인 바탕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일상행동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않고 언제나 양심이 자기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共通點을 가질 수 있다. 物質文明이 발달할수록 人間 자체의 존엄성이 약해지고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진다. 도덕의 타락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선진국에서 발생되었으나 規範體系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번지듯이 쉽게 전파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서구사회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윤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둘째는 公益性의 原則(principle of public interests)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은 최소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것

이며 나아가서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의 利益만을 추구하는 社會는 발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儒敎哲學의 영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血緣 또는 地緣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미풍양속이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의 倫理로서 다소 문제가 없지 않다. 우리는 그러한 편협한 관심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가 發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社會的 倫理와 秩序意識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서구의 기독교 倫理는 쉽게 현대사회의 윤리로 전환될 수 있음에 반하여 五倫과 같이 잘 아는 사람들간의 倫理가 지배적인 유교적 傳統에서는 公益이 자칫하면 무시되기 쉽다. 따라서 弘益人間의 전통을 현대 한국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公益性의 原則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송·신문 등 大衆媒體와 전국적인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大企業과 사회단체들에게 보다 중요한 問題이다.

그 셋째는 公正性의 原則(principle of fairness)이다. 개인이나 集團의 성공은 사회에서 인정된 규범체계를 위반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노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준에 따라 공평해야 한다. 우리 사회 체제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자유롭고 공정한 競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정이란 平等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機會의 均等を 말한다. 사회적 경쟁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人脈이나 기타 非合理的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면 밀려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 원칙은 무엇보다도 먼저 公務員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며 각종 사회조직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때 준수되어야 할 原則이다. 공정성이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사회도 단결되기 어려우며 단결이 없이는 發展되기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合理性의 原則(principle of rationality)이다. 이것은 目的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合理性은 운명론이나 결론과는 대립되며 경제성, 과학주의, 창의성과 통

한다. 합리성을 존중하고 社會는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뒤떨어진다.

이 原則은 곧 어떠한 成果란 노력의 결과이지 運命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삶은 自然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運命論의인 思考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5~6년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不勞所得이나 누구의 도움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主體意識을 가진 個人들이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자신과 조직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意識構造와 生活慣習 속에서 非合理的이고 前近代의인 要素들을 하루속히 없애버리고 합리적인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社會淨化의 原則에 입각하여 지난날의 우리의 政治·經濟·社會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社會淨化의 올바른 방향을 인식하며 각계 각층에 맞는 사회정화운동의 목표와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정권을 담당하려는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선거)을 통해서 선발되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國益을 우선으로 정당간에 상호 타협하며, 국민에게 공평한 봉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합법적·합리적 경쟁의 장이되지 못하고 권력과 권력을 동원하거나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타락 선거가 되고 일단 당선이 되면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부정·부패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또한 政黨間에 합리적 대립과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익에 혈안이 되어 公益은 아랑곳없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것도 사실이다.

둘째로, 공무원들은 공복으로서 공평한 對民奉仕보다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여 국민을 다스리며 국민에게 무엇을 베풀어 준다는 관료주의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와같은 권력층과 공직자들의 특권 의식은 사회 일부의 엘리트 의식과 함께 법규를 초월할 수 있다는 불평등 의식을 가져와 권력형 부조리나 공직자부조리를 당연시 하는 경향이 되었다. 이러한 특권 의식 앞에서는 連帶意識도 협동도 불가능하며 불평등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무력감과 소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政府政策을 신뢰할 수 없는 정부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셋째로, 그렇다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전한 市民倫理를 가진 것도 아니다.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올바른 民主政治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市民意識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秩序·遵法·寬容·妥協·協同의 생활태도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현대 民主政治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다. 民主主義란 國民 하나 하나가 主人이 되는 政治理念이며 그러한 이념은 각자가 主人精神을 가질 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주인정신이란 국가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남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責任을 질 수 있는 정신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家門을 빛낸다든가, 동창 또는 고향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主人되는 權利(즉 主權)를 행사하지 말고, 民意를 대표할 수 있고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法이나 規定을 지키는 것도 王政下에서는 法規가 왕이 내린 것이니까 피동적으로 지키면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마련된 法은 누가 보든 안보든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民主市民으로서 명심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倫理는 兵役과 納稅의 義務이다. 우리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自主國防 意識은 당연한 것이며 나라 살림을 위해서 필요한 稅金은 자진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稅金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내고자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社會淨化運動은 民主的 市民倫理를 함양하자는 운동인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경제의 특징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공평한 자유경쟁, 信用을 전제로 한 交換關係, 정당한 노력을 통한 利潤追求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生産者 倫理,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倫理 그리고 소비자 倫理가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勤儉·節約·勤勞를 미덕으로 하는 합리적인 직업윤리 또는 넓게는 건전한 인생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알고, 돈을 번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린 댓가라는 근로와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宗教倫理가 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선의의 자유경쟁이

못되고 독과점적 비경쟁이 특징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 시장의 협소와 수출 주도 정책에 힘입어 전체의 86%가 독과점 상품에 속한다. 더구나 독과점 체제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평적인 흡수합병과 유통단계에서의 수직적 합병을 통하여 독점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둘째로, 경제적 교환질서는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품 생산, 과대광고, 가격체제 혼란, 상도덕 결여 등으로 인하여 生産者·販賣者·消費者간의 관계가 두터운 信用을 바탕으로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利潤追求도 專門化, 技術革新, 經營合理化와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야 하나 무절제한 이기심과 손쉬운 부의 축적을 노려 脫稅, 특허추구, 퇴폐업소 경영,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일확 천금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노력과 능력에 소득이 비례하지 못하는 모순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추구한 소득은 합리적인 지출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행비위는 體面維持나 부위 과시를 위하여 분수를 망각한 과소비 풍조가 도시를 휩쓸고 있다. 특히 성장 정책에 힘입어 富를 축적했다면 당연히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란다'는 기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社會淨化運動을 통해서 近代의 經濟倫理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정치나 경제가 결국 사회적 특성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家庭生活이나 一般 社會生活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規範體系가 정치나 경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은 사회발전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다.

우리 社會를 돌아보면 첫째로, 封建的 思考方式가 잔존하여 권위주의, 엘리트 의식, 특권의식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업적을 기준으로 한 인사행정이나 업무처리보다는 緣故主義가 보다 중요한 결정인자가 됨으로써 公正性和 合理性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로, 사회적으로 共同體意識에 바탕을 둔 人間關係倫理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서로간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唯我獨尊으로 의견

차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극단적인 對立으로 맞서는 등 다양하다. 자기의 인격을 존경받으려면 먼저 남의 인격을 존경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각자는 利己的 欲望을 억제하고 自律的 判斷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성숙된 人間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욕망의 억제없는 放縱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않는 것은 近代社會에 적합한 人間關係倫理라고 말할 수 없다.

셋째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公共場所에서의 秩序意識도 문제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길거리에 휴지 한 조각, 담배 꽂초 하나를 버리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그러나 都市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 도시는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많은 公共場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노약자를 보호하고 낯선 사람의 길을 안내해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公共倫理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도시의 질서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交通秩序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날치기, 강도, 폭력배와 불량배의 난동등 갖가지 秩序 破壞行爲를 목격하고도 방관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집에 들어 온 도둑을 쫓아내듯이 각자가 주인인 民主社會에서 우리 사회의 질서파괴 행위자는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합심하여 배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질서 파괴의 피해가 조만간 나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서 파괴자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과 현장에서 교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갖가지 분수에 어긋나는 허례허식적인 것이 허다하다. 관혼상제를 위해서 과다한 지출을 한다든가, 과도한 봉사료를 지불하고, 외제품을 자랑하며, 過熱 課外수업 등은 현대사회에서 불식되어야 할 폐습들이다. 또한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社會的 機能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職業에 貴賤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現代産業社會에서는 올바른 職業倫理를 갖는 것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現代組織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학교, 이익집단이나 정당들도 형식은 근대적이거나 실체는 봉건적인 요소가 지배적이다.

각종 협회나 조합들도 명목상으로는 회원의 권익보장을 앞세우나 사실은 과다한 회비 징수와 갖가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사회정화 자체가 원래 목표인 종교집단들조차도 派閥싸움과 利權紛糾가 잦은 편이며 文化藝術團體들도 본래의 목적에서 떠나 상업주의로 타락된 경향이 없지 않다. 요컨대 社會淨化運動은 現代的 社會倫理를 함양하며 나아가서 合理的 社會秩序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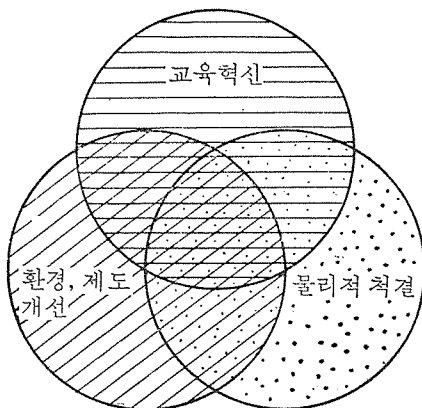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단편적인 선술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갖가지 고쳐야 할 점과 새로 마련해야 할 규범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 現代 韓國에 맞는 규범질서를 마련하지 않고는 先進國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接近方法

어느 社會運動이든지 그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운동에 대한 뚜렷한 방향과 단계적인 推進節次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은 우리사회의 현실 여건과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마련됨으로써 국민다수의 올바른 인식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각급 정화추진위원회는 선정된 活動課題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淨化目標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2>

〈그림 2〉 정화추진 3대수단



첫째로 物理的 剔抉이란 의미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비리와 폐습, 違法등 부정적 요소의 제거를 말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생각할때 자

기 주변 사람들의 비리·폐습 행위를 고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진지한 충고를 통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안될 때 정화추진위원회가 권고하여 바로 잡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효과가 없는 고질적인 不義, 不法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법적제재 즉 강제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리, 폐습 또는 社會倫理의 결여는 社會의 文化風土와 개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政治, 經濟, 社會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 바 있지만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도 무엇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내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환경 및 제도의 개선은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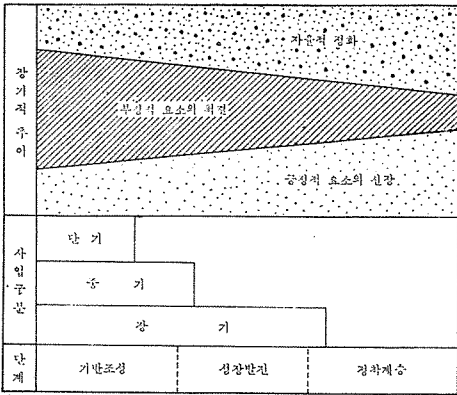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物理的 剔抉과 환경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行動規範을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精神革命을 성공시키기란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行動規範과 가치관을 가르치더라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교와는 다른 행동규범과 가치관이 지배적이라고 느낄 때 청소년들은 큰 혼란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精神革命이란 이룩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社會淨化運動은 남녀 노소 또는 각계 각층의 정신혁명을 위한 發育革新運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3대 정화수단은 여건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淨化推進 3대수단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행해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를 정화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협조를 얻어야만 성공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사회정화운동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림 3>

먼저 정화과제의 長期的 推移를 고려할 때 처음 정화운동을 시작할 때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요소들에 대한 물리적 척결이 다소 지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정적 요소의 剔抉活動은 점차 적어지고 긍정적 요소의 신장

〈그림 3〉 정화의 장기적 전개



활동이 점차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肯定的인 要素를 제거한다 함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다. 즉 지역 또는 단체 나름대로 개개인의 양심에 입각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啓蒙活動으로 고쳐나가고, 자발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社會의 非理와 폐습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또는 단체 구성원의 同意와 共同努力으로 다소 강력한 규제력을 통해서라도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肯定的인 要素를 신장한다 함은 그 地域 또는 集團條件과 目標에 맞는 價値와 行動指針을 계속 獎勵鼓舞시킴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이해를 이룩하고 相互協力하는 공동체적 紐帶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구성원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地域社會內的 직장, 교육기간, 종교, 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一貫性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社會淨化運動은 국민의 自發的이고도 能動的인 參與에 바탕을 두는 民間主導의 社會運動인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男女老少, 地位, 行富에 관계없이 그 地域의 전주민이 스스로의 능력 범위내에서 참여하는 운동으로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社會淨化運動이 범국민적인 진정한 精神革命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며 올바른 國民道義에 기초한 자유적인 정신풍토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社會淨化運動의 3단계 接近方法은 단순히 1회적인 것이 아니며 時期와 狀況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既存하는 社會惡과 不條理의 剷拔은 물론 再生되는 각종 非理까지도 근절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社會淨化運動은 어떤 기간동안만 추진하는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며, 잔존해 있는 사회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시정하고 傳統觀을 계승함은 물론 祖國의 未來를 發展的 價値觀으로 승화시킨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長期的 淨化運動展開를 구태여 단계적으로 區分한다면, 短期, 中期, 長期事業으로 구분하여 推進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단기사업이란 지역 또는 단체의 정화추진 위원회가 시급하다고 느끼는 과제에 단기간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는 폭력, 사기, 공갈행위 등을 위시하여 퇴폐업소, 불량품 제조와 판매, 퇴폐적인 내용의 도서와 음반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 건전한 國民生活를 해치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交通規則을 지키고 公衆道徳은 물론 상거래 질서와 行樂秩序를 확립하는 노력을 통해서 질서의 생활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社會淨化運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우선해서 실천하고 지도해 나갈 先導者를 양성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中期事業이라함은 그 사업의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고 또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研究와 準備가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사는 地域社會 또는 우리가 매일 활동하고 있는 직장이나 단체에는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환경과 제도가 허다하다고 본다. 또한 大衆媒體의 活動, 문화단체의 사업, 각종 집단의 研修教育 등을 점토하여 國民精神改革的 次元에서 발전시키는 문제도 이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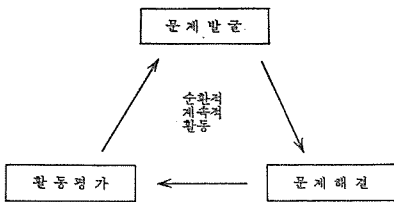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長期事業이라 함은 民族과 國家發展의 長期的 次元에서 오랜기간에 걸쳐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노력해야 할 활동을 의미한다. 國民의 정신개혁을 궁극적 목표로 한 社會淨化運動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정신혁명이 몇년내에 이룩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는 國家發展 長期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의 각계 각층도 장기적으로 教育革新을 이룩하고 문화 예술의 부흥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바람직한 가치

관과 행동양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社會淨化運動이 과거의 수다한 國民運動과 다른 점은 과거의 운동들이 주로 短期事業에 중점을 두었다면, 社會淨化運動은 中・長期事業에 중점을 두어 처음부터 合理的 理論體系를 수립하고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精神革命을 성공시킨다는 안목에서 조용하고 알차게 추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社會淨化運動의 초기단계는 汎國民運動을 위한 基礎造成段階로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의 4~5年間은 社會淨化運動이 국민 각계에 확산되는 成長發展段階로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의 단계를 定着繼承段階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것은 주로 社會淨化運動의 전반적인 接近方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학교나 團體 등의 淨化推進委員會에서 어떻게정화운동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推進要領을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淨化推進委員會의 활동에 포함될 사항은 어떠한 과제를 선정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評價分析하는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그림 4〉 사업추진 과정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推進委員會의 活動領域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발전시켜야 할 목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그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과제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期待効果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問題發掘(problem identification) 또는 活動課題選定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活動課題는 共同課題, 地域課題, 自體課題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共同課題란 전국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社會淨化

運動 中央協議會에서 선정하여 전국의 각 淨化推進委員會로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地域課題는 市・道 또는 市・郡・區 등 지역사회의 여건에서 절실한 문제로서, 지역사회 의 각계 각층이 공동노력으로 실천할 과제로서, 그 지역의 淨化推進協議會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自體課題는 市・郡 이하 단위의 지역, 그리고 직장과 단체, 학교 등에서 선정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共通課題에 해당되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중도덕 준수하기」라든가 「교통질서 지키기」 등을 들 수 있겠고, 地域課題로서는 그 지역이 관광지일 경우, 「친절하게 봉사하기」, 「바가지 요금안받기」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自體課題로서는 그 地域이 商街일 경우에 「호객 강매행위 안하기」, 「영수증 주고받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각급 정화추진위원회가 活動課題를 選定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첫째로, 公益性이 큰 것부터 선정하여야 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公共의 利益을 앞세워 그 지역 또는 집단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有用할 수 있는 課題부터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공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모두가 명랑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기틀이 될 수 있는 등, 가능한 국민대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課題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實踐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선정한다. 예를 들어 한 地域內에서 시장환경이 불량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많다고 볼 때, 短期間內에 그 地域內의 모든 시장환경을 改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시장 주변을 상인들 스스로 청소하는 등 쉽게 할 수 있는 課題부터 선정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셋째, 形式的인 활동보다는 實質的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選定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실제로 행하기 어렵고 막연한 형식적인 표어들이 허다하다. 예를 들어, 검소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는 것보다는 폐품을 活用한다든지, 전기, 수도물, 석유를 아껴쓰자고 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活動課題選定에 있어서 네번째 고려 요소로서 그 과제가 어떤 地域 또는 집단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절실하게 요망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

망하는 사항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 行해야 할 活動課題도 역시 다양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 行해야 할 活動課題도 역시 다양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다양한 活動課題中 우선 순위를 정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맞게 선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派生的인 문제보다는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交通秩序問題에 대해서 볼 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전자, 보행자에 대한 交通規則啓蒙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交通規則을 지킬 수 있도록 交通環境 및 交通制度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社會的으로 波及效果가 큰 課題부터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 추진해온 事業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사회지도층이 부정, 불의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엄단함으로써 법에는 예외가 없다는 認識을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도 파급효과가 큰 활동과제라 하겠다.

위와같은 고려사항에 따라서 일단 實踐할 과제가 선정되었다면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多樣한 수단과 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나아가서 단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接近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적절한 淨化實踐手段을 검토함에 있어서 수단의 장점만 比較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며 또 인접 淨화추진위원회와 協同方法도 검토해서 推進하여야 한다.

選定된 課題를 效果의으로 실천하기 위한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몇 가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는, 既存組織을 이용하는 方法이 있다. 이것은 관공서, 사회단체, 일반회사 등과 같은 公式的인 組織體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既存組織의 각종 集會나 教育의 기회를 活用하여 자연스럽게 合理的으로 教育·啓蒙하며 組織體의 책임자의 적극적인 支援에 엄정한 信賞必罰의 분위기하에서 實質的인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輿論을 통한 活動方法이 있다. 이것은

地域社會나 대규모·조직체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세미나, 강연회, 事例發表 등을 통하여 參與者에게 合理的인 說得과 心理的인 刺戟을 유발시키며 각종 弘報手段을 통하여 주민을 啓導하거나 선도하는 活動方法이다.

셋째로는, 個別接觸을 통한 方法이다. 이 方法은 비공식 집단(informal group)이나 소규모 조직체에 보다 效果的인 方法으로, 說得과 勸告, 충고 등을 통하여 선도하는 것으로서, 이 때에는 주로 대상자들 중에서 영향력이 큰 輿論先導者에게 먼저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이후에 一般人들을 說得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물론 이와같은 社會淨化運動의 活動을 더욱 効果적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社會淨化中央協議會와 地域淨化推進協議會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展開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 및 傘下機構에서도 自體淨化推進委員會를 구성하여 自體淨化運動을 推進하는 한편, 사회단체 및 직장등의 淨化推進委員會 活動을 적극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社會淨化中央協議會에서는 淨化운동의 基本方向을 설정하고 범국민적인 參與意識을 고취시키며 地域淨化推進協議會의 활동을 調整·統制하고, 淨化推進過程에서 발견된 國民의 政府政策에 대한 개선안을 건의하게 된다. 地域淨化推進協議會에서는 그 地域特性에 맞는 自體淨化課題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分析·評價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實踐이 상당히 진전되었거나 또는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활동에 대한 評價(evaluation of activities)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淨化運動을 위한 課題의 選定과 問題分析이 타당했는지 혹은, 課題實踐手段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과제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評價한다. 이러한 評價分析은 앞으로의 淨化運動의 推進對策樹立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評價方法으로서, 自體課題는 推進委員會에서 관계있는 機關과 협조하여 評價를 하도록 하고, 地域課題는 자체 推進委員會는 물론 市·郡으로부터 特別市 및 道에 이르는 上位 地域淨化推進協議會에서 차례로 評價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共同課題는 中央協議會에서 評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